

# 라이온후푸드의 케인즈經濟學 再解釋의 意義와 限界

李 廷 雨\*

|                      |                         |
|----------------------|-------------------------|
| 目 次                  | 次                       |
| I. 序 論               | 3. 貨幣經濟에 있어서의 왈라스法則의 崩壞 |
| II. 케인즈經濟學 再解釋의 背景   | 4. 貯蓄·投資와 流動性選好         |
| 1. 케인즈經濟學의 靜學的 解釋    | 5. 金融政策論과 富效果           |
| 2. 反革命으로서의 新古典派綜合    | IV.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의 問題點    |
| III.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의 骨子 | V.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의 意義와 限界  |
| 1. 不完全한 情報와 數量調節     | VI. 結 論                 |
| 2. 消費函數와 乘數의 本質      |                         |

## I. 序 論

經濟學에 있어서의 케인즈의 진정한 貢獻은 무엇이며 經濟學說史上 그의 位置는 어떻게 定位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그의 主著인 『一般理論』이 出版된지 만 40년이 지나서에 이르기까지도 完전한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물론 經濟學의 大家일수록 後世에 의해 그 業績이 두고 두고 再吟味되는 것이 通例이긴 하지만 케인즈의 경우만 特한 評價를 받는 學者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경우 때로 | 않은 非難의 對象이 되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케인즈革命」이나 「케인즈의 | 하는 語句가 示唆하는 바와 같이 今世紀 最高의 經濟學者로 추앙되는가 하면 그 뒤를 | 부분의 經濟學者들이 스스로 케인즈인임을 自處할 정도로 學界의 公認을 받았음에 | 하고 그의 理論에 대한 論難이 끊임없이 繼續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論難이 언 | 繼續될런지는 모르지만 이제까지의 論爭을 整理하는 것이 現代經濟學의 흐름을 을 | 把握하는 데 必須의인 段階라고 생각되므로 筆者는 本稿를 통해 그 一端을 紹介, 批 | 려 한다.

하는 바와 같이 케인즈가 提示한 새로운 理論體系는 릭스, 한센의 손에 의해 IS-LM 또는 所得—支出理論으로 定式化된 뒤, 다시 사무엘슨(P.A. Samuelson)의 손에 의해 | 究所 補助研究員, 서울大學校大學院 經濟學科 博士課程.

新古典派綜合(neoclassical synthesis)이란 이름아래 新古典派의 傳統的인 價格理論과 巧妙히 작지워졌고 그후 그의 經濟學은 오늘날의 모든 經濟學教科書에서 巨視經濟學으로 君臨하고 있다. 어떤 革命的인 理論이 나타나 술한 論爭을 거친 뒤에 마침내 初步的인 教科書에 실릴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理論의 革命은 完遂된 것이라고 하는 쿤(T. Kuhn)의 科學革命의 圖式을 우리가 일단 認定한다고 하면 經濟理論에 있어서의 케인즈革命은 완전히 成功한 것으로 봄이 마땅할 것이다.<sup>(1)</sup> 그러나 이것은 外觀上 그러할 뿐이고 좀 더 깊이 캐고 들어가 보면 실제로 現代經濟學의 主流는 케인지안에 의해 掌握되고 있지 않다는 事實을 곧 알 수 있다. 더구나 逆說的인 것은 그 主流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 케인즈가 시종일관 批判하였던 新古典派의 分析道具와 思考方式, 이데올로기를 거의 그대로 踏襲하면서 그것을 難澁한 數學을 통해 더욱 精緻化하여 온 소위 新新古典派라고 하는 事實이다. 이들의 理論은 傳統的인 價格分析 이외에 一般均衡, 最適成長, 適正通貨 등 多方面에 걸쳐 날이 갈수록 洗鍊되고 高度化하여, 知識水準이 상당한 經濟學者들끼리는 서로 理解하지만 初學者나 一般人들에게는 너무나 難解하여 한갓 잡꼬대와 다를 바 없는 形편에 이르고 있다. 事情이 이러한 즉 經濟學徒들은 이들 抽象的인 理論의 消化에 급급한 나머지 『一般理論』따위는 완전히 하나의 古典——아무도 읽지 않는 책——으로 取扱하고 있다. 하기가 教科書마다 IS-LM이란 아름다운 曲線이 케인즈經濟學을 잘 要約한 것처럼 宣傳하고 있는데 구태여 낡은 책을 읽을 必要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現代의 經濟學이라고 해서 新新古典派 一色인 것은 아니고 英國의 케임브리지大學을 中心으로 한 新케인즈派(neo-Keynesians)나 프리드만을 비롯한 通貨主義派(monetarists)등 現代經濟學의 內部에도 여러 學派가 나뉘어져 서로 對立하고 있어 예컨대 『로빈슨女史와 같은 사람은 新新古典派의 立場을 취하는 美國의 케인지안들을 가리켜 庶出케인지안<sup>(2)</sup> (the bastard Keynesian)이라고 서슴없이 酷評하면서 그에 對立하는 自身の 理論體系를 定立해가고 있다.<sup>(3)</sup> 뿐만아니라 특히 最近에는 貧困, 스테그플레이션, 環境破壞, 資源枯渴 등 資本主義經濟의 解決하기 어려운 諸問題가 계속 露呈됨에 따라 經濟學과 케인즈적 經濟政策에 대한 不信과 批判이 高潮되는 가운데 케인지안의 經濟學과 區別되는 케인즈經濟學의 진정한 意味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一連의 試圖가 있어 學界의 非常한 關心을 모으고

(1) R. Stanfield, "Kuhnian Scientific Revolutions and the Keynesian Revolution," *Jour. of Econ. Issues*, Mar. 1974, pp. 98-105 참조.

(2) J. Robinson, "What Has Become of the Keynesian Revolution?" *Challenge*, Jan. 1973.

(3) 現代經濟學의 諸學派에 대해서는 P. Davidson, *Money and the Real World*, Macmillan, 1972의 第 1章에서 흥미있는 分類를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만 하더라도 클라우어(R.W. Clower), 라이온후푸드(A. Leijonhufvud), 데이비드슨(P. Davidson), 민스키(H.P. Minsky) 등이 케인즈經濟學을 종래와는 전혀 角度에서 全面的으로 再解釋하고 있고<sup>(4)</sup> 이러한 雰圍氣 속에서 칸(R.F. Kahn), Hicks, 파틴킨(D. Patinkin) 등 著名한 經濟學者들도 다시 케인즈에 눈을 돌리고 있어 이러한 케인즈理論의 再解釋作業은 단순히 學說史의 好奇心의 充足에 그치는 것이 아 오늘날의 經濟危機에 有効하게 對處하지 못하는 無能한 正統派經濟學에 대한 批判과 그것을 代替할만한 새로운 理論의 摸索이라고 하는 積極的인 側面을 함께 가지고 2로 매우 큰 意義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II에서는 이들 여러가지 再解釋 중에서 理論적으로 매우 體系的이고 獨創的인 일 뿐 아니라 케인즈의 經濟學을 케인즈의 經濟學, 즉 IS-LM模型으로 代表되는 所得—支出理論(me-expenditure theory)과 嚴格히 區分함으로써 學界에 크나큰 衝擊을 주고 있는 라이온후푸드의 所論을 中心으로 하여 그의 再解釋이 나오게 된 背景, 再解釋의 內容, 意義, 學界 등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라이온후푸드의 論이 나오게 된 背景으로서 케인즈와 新古典派 사이의 論爭의 歸結로서의 新古典派綜는 新經濟學(New Economics)이 確立되고 케인즈革命이 反革命에 의해 崩壞되는 過程간략히 叙述하며 III에서는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의 樣子를 說明의 편의상 몇개의 項로 나누어 紹介한다. 다음 IV에서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에 따르는 몇 가지 問題點을 指 뒤 V에서는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의 意義와 그 限界를 함께 吟味하고 끝으로 VI에 論을 내릴 것이다.

## II. 케인즈經濟學 再解釋의 背景

### 1. 케인즈經濟學의 靜學的 解釋

30年代 後半 이후에 와서 여러 사람에게 의해 케인즈經濟學이 全面的인 再檢討를 받게 된 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930, 40年代에 걸쳐 벌어진 소위 「케인즈와 古典派」<sup>(5)</sup>의

) 그 代表的인 著作을 들면 각각 다음과 같다. R. W. Clower, "The Keynesian Counter-Revolution; A Theoretical Appraisal" (1965), repr. in *Readings in Monetary Theory*, Penguin, 1969. A. Leijonhufvud,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Keynes*, Oxford, 1968. P. Davidson, *Money and the Real World*, Macmillan, 1972. H. P. Minsky, *John Maynard Keynes*, Columbia, 1975.

) 이는 원칙적으로 新古典派라고 함이 올바른 語法인데 케인즈 自身이 古典派와 新古典派를 混同 함으로써 그뒤 古典派란 用語가 자주 使用되었다. 이하 本稿에서는 新古典派로 부르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R. L. Meek, "The Place of Keynes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in *Economics and Ideology and Other Essays*, Chapman and Hall, 1967, pp. 179-83을 보라.

論爭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論爭은 賃金の 硬直性이라고 하는 假定없이도 과연 케인즈가 말하는 失業(不完全雇傭)均衡이 成立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sup>(6)</sup> 케인즈의 後繼者들은 賃금이 伸縮的인 경우에도 失業均衡이 存在할 수 있다는 것을 證明하기 위해 두 가지 特殊한 假定을 導入하였으니 하나는 流動性陷穽의 假定이요, 다른 하나는 貯蓄·投資의 利子率非彈力性的 假定이었다. 이것은 Hicks流의 표준적인 IS-LM模型에서 「케인즈의 領域」이라고 불리는 部分이 가지는 두 가지 性質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假定은 케인즈안들에 의해 매우 強調되었지만 사실 이들 假定은 케인즈가 想定한 賃金—物價—通貨量—利子率—投資—雇傭이란 連鎖的 傳達機構에서 직접 導出되는 것이다. 이러한 傳達機構의 機能을 否定하고 失業均衡의 可能性을 證明하기 위해 케인즈안들이 通貨量과 利子率, 利子率과 投資라는 가장 약한 두 개의 고리에 注意를 集中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歸結이었다.

이러한 特殊假定을 基礎로 하여 케인즈안들은 失業均衡의 可能性을 빈틈없이 證明한 것이라고 自慢하였고 한 때에는 바로 이 점이 케인즈理論과 新古典派理論의 本質的인 差異라는 見解가 學界에서 通說로서 認定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均衡이라고 하는 概念에 너무 執着한 나머지 케인즈理論을 지나치게 靜學的으로 解釋한 데에서 빚어진 結果에 不過하였다. 이러한 식의 靜學的인 케인즈 解釋은 몇가지 結果를 몰고 왔으니 첫째, 케인즈理論은 IS-LM模型에서 「케인즈의 領域」 또는 「不況의 領域」이란 한쪽 모퉁이로 밀려남으로써 케인즈가 『一般理論』의 첫머리에서 그렇게나 자랑하였던 「一般」理論은 곧 「特殊」理論으로 變身하였다. 둘째, IS-LM模型은 經濟問題를 다시 新古典派的 均衡의 決定이라는 비유를 울타리 안으로 還元시킴과 同時에 新古典派에게는 絶好의 反擊機會를 提供하였으니 거기에 登場한 武器가 바로 피구, 하벌러, 시톱스키, 파틴킨 등이 主張하는 피구효과이다.

피구효과는 利子率이라는 媒體를 통하지 않고 직접 消費支出을 刺戟하는 것이므로 케인즈안들이 主張한 流動性陷穽이나 投資의 利子率非彈力性 따위는 아무런 障礙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구효과가 作用하는 한 失業均衡의 可能性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問題는 現實的으로 피구효과가 과연 얼마나 實効性이 있는가 하는 점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問題點이 指摘된다.

첫째, 피구효과를 낳는 것은 通貨量全體가 아니라 外生貨幣에 불과하므로 그 効果는 메

(6) H.G. Johnson, "Recent Developments in Monetary Theory" in *Essays in Monetary Economics*, Allen and Unwin, 1967, p. 76 참조.

限된다.

제, 만일 賃金과 物價가 계속하여 下落한다면 사람들은 將來에 物價가 더욱 下落할 것 期待하여 消費를 오히려 減少시킬 것이다.

렇게 볼 때 皮古效果는 그 實效性이 대단히 疑心스러우며 실제 經驗的 研究에서도 그 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逆說의인 것은 皮古效果를 主張하는 사람 저도 그 現實性이 없음을 솔직히 認定하면서 政策으로서는 採擇하지 말 것을 勸告하고 접이다. 이와 같이 皮古效果는 現實의 世界와는 無關한 하나의 卓上空論에 지나지 않

거나 우리가 일단 Hicks流의 靜學的 IS-LM模型의 대두리 안에서 케인즈理論과 皮古效 對決시키는 한 「皮古效果의 理論은 冷嚴하며 그 結論은 數學的으로 볼 때 必然的으로 된다」<sup>(7)</sup>는 事實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實踐的인 側面에 있어서는 그 有效 贊反 雙方을 不問하고 否認되면서도 理論的 側面에 있어서는 純粹理論이란 美名下에 效果는 대부분의 經濟學者들에 의해 失業 均衡의 論破로서 認定받았으며 그 결과 케인 論은 賃金硬直性이라고 하는 最後의 保壘로 後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러한 케인즈理論의 敗退는 IS-LM模型이라는 靜學的 分析道具를 가지고 케인즈를 機械 로 解釋함으로써 빚어진 結果이지만 어쨌든 皮古效果의 理論的 勝利가 「均衡의 調和를 하는 者들의 體面과 名譽를 回復시키는데 寄與한」<sup>(8)</sup>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 2. 反革命으로서의 新古典派綜合

學的 模型을 가지고 케인즈理論을 解釋하려던 케인지안들의 努力은 결국 均衡分析을 의 寶刀로 간직한 新古典派理論을 復活시킴으로써 스스로 敗北를 自招한 셈이 되었다. 켄 케인지안과 新古典派는 오랜 論爭에 終止符를 찍고 「新古典派綜合」이란 이름의 休約을 締結하였으니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sup>(9)</sup>

제, 케인즈가 대담하게도 一般理論이라고 이름붙인 理論은 실은 新古典派의 一般(均 論에 賃金の 硬直性, 流動性陷穽, 貯蓄·投資의 利子率非彈力性 따위의 몇가지 制限 設定을 붙인 하나의 特殊理論에 不過하다.

제, 그러나 케인즈의 特殊理論은 現實世界的 政策的 側面에 있어서는 新古典派理論보 有用하다.

) A. Leijonhufvud, *Keynes and the Classics*, Inst. of Econ. Res., 1969, p. 17.

) P. A. Samuelson, "A Brief Survey of Post-Keynesian Development" in R. Lekachman (ed.), *Keynes' General Theory: Reports of Three Decades*, Macmillan, 1964, p. 333.

) A. Leijonhufvud,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Keynes*, Oxford, 1968, pp. 7-8.

이것은 사무엘슨이 그의 『經濟學原論』 第5版에서 그토록 自信滿滿하게 強調하고 있는 마케인즈적 財政·金融政策을 통해 일단 完全雇傭이 實現된다면 新古典派의 價格分析이 正當성을 되찾게 된다고 하는 雄辯을 달리 表現한 데 불과하다. 사실 新古典派綜合의 發想은 사무엘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一般理論』에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데 케인즈는 그의 著書의 末尾에 가서 正統派理論에 대한 激烈한 攻擊의 고삐를 슬그머니 늦추면서 新古典派綜合과 거의 같은 內容의 所信을 披瀝하고 있다.<sup>(10)</sup> 이것은 그 自身 아직도 傳統的 思考方式의 굴레에서 완전히 解放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어쨌든 新古典派綜合은 正統派經濟學者들로 하여금 「統制받지 않는 私企業과 소위 自由 價格體制에 대한 옛 사랑을 그대로 간직한 채 世學說과 和解」<sup>(11)</sup>로록 해 주었지만 다른 한편 擘어도 經濟理論分野에 있어서의 케인즈革命의 意義는 이로 말미암아 거의 消滅하게 되었다. 다만 케인즈革命의 意義가 있다면 그것은 經濟政策의 側面에 있어서 完全雇傭을 保障케 함으로써 新古典派理論이 다시 展開될 수 있는 土壌을 마련해 준 데에서 發見될 뿐이다. 원래 新古典派理論에 대한 批判으로 出發한 케인즈理論이 결과적으로는 新古典派理論을 正當化시켜주는 手段으로 轉落하였다는 事實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新古典派綜合의 不平等條約으로서의 性格이 露出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케인즈革命이라는 一大事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經濟學의 主流은 여전히 新古典派의 수중에 掌握되고 있는 느낌이 있으니 오늘날의(특히 美國의) 代表的인 經濟理論家는 所得·支出理論과 高度의 數學이라는 新武器를 갖추고 있지만 그 基本的인 分析方法이나 思考方式, 이데올로기에 있어 케인즈 이전의 新古典派와 本質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新新古典派 또는 庶出케인즈인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은 바로 이 같은 緣由한다고 할 수 있다.

新新古典派의 그늘에 가려 케인즈는 이제 위대한 經濟學者로 존경받지 못하게 되었고 學部水準의 經濟理論과 政策立案者의 思考에는 큰 影響을 미쳤지만 高度의 科學的인 水準에서의 理論的 貢獻은 부끄러울만치 通俗的이었다<sup>(12)</sup>는 評價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케인즈革命」이라느니 「케인즈의 時代」라느니 하는 讚辭는 한갓 形式的인 口號에 그칠 뿐이 있고 프리드만이 풍자하듯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즈인이지만 또한 아무도 케인즈인

(10)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1936, pp. 378—79.

(11) M. Dobb, "Full Employment and Capitalism" in *On Economic Theory and Socialism*, Rutledge and Kegan Paul, 1955, pp. 219—20.

(12) H.G. Johnson, "Recent Developments in Monetary Theory— A Commentary," Croome and Johnson(eds.), *Money in Britain, 1959—1969*, Oxford, 1970, p. 92.

「나더」라는 逆說的인 狀況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新古典派理論이 復活, 得勢 가운데 아무도 읽지 않는 케인즈의 『一般理論』대신 IS-LM模型이 標準的인 케인즈經으로 行勢하게 된 狀況을 가리켜 클라우어가 케인즈反革命이라고 命名한 것은 매우 適表現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런데 이러한 反革命이 단순히 抽象的인 理論의 다름에서 일어났다고 본다면 그것은 너 近視眼的인 觀察인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몇 가지 理論外的 要因이 複合的으로 加였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케인즈革命을 失敗로 돌아가게 만든 그 밖의 要因이 어떤 것들인가?

제, 케인즈의 『一般理論』에는 新古典派의 正統的 理論이 적지않게 殘存해 있고 새로운 的 敘述이 不正確한 데가 많아 誤解를 誘發할 素地가 있는 데다가 그 自身『一般理論』 釋作業에 거의 參與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큰 誤解를 빚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 『一般理論』 이후 약 30년간 西歐資本主義諸國에는 가벼운 景氣後退가 몇 차례 있긴 하였지만 대체로 보아 完全雇傭에 가까운 狀態가 實現되었다. 이것은 주로 大戰中の 莫戰費支出과 戰後의 케인즈적 經濟安定政策의 實施에 基因하는 것인데, 이러한 오픈의 好景氣는 經濟學者들의 머리 속에 다시는 1930年代와 같은 大恐慌이 到來하지 않을 라는 樂觀을 심어 주었다. 이와 같은 樂觀의 雰圍氣는 景氣變動이나 經濟의 不安定性을 하는 케인즈理論을 褪色시키고 그 대신 均衡과 持續의 成長을 信奉하는 新古典派理論 上시키는 데 크게 寄與하였다.<sup>(13)</sup>

제, 케인즈의 理論體系는 원래 急進的인 思想과 保守的인 政策이라는 相互矛盾된 두의 混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데올로기의 作用으로 인해 前者는 점차 淘汰되어 버리고 後者만이 남게 되었다.<sup>(14)</sup> 그리고 이 過程이 거의 完成을 본 것이 新古典派綜合이라고 있다. 물론 前者의 빈 자리를 메운 것이 자칭 科學的인 純粹理論인 新古典派理論이 그러나 皮구効果와 같은 卓上空論이 學界에서 承認되었다는 事實에서 미루어 볼 때 그 純粹理論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理論의 탈을 쓴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것이 아닌지 의롭다.

제, 케인즈의 經濟分析은 일반적으로 短期的인 性質의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당시 急迫한 現實의 問題를 解決하지 않을 수 없었던 事情에 미루어 볼 때 不可避한 일이었다 基本的으로 그의 理論은 언제나 長期的, 歷史的, 또는 制度的 視點 속에서 誕生하였다

3) H.P. Minsky, *op. cit.*, pp. 12-18 참조.

4) W.S. Gramm, "Natural Selection in Economic Thought; Ideology, Power, and the Keynesian Counterrevolution," *Jour. of Econ. Issues*, Mar. 1973. 참조.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케인지안 특히 美國의 케인지안들은 케인즈의 비전은 거의 沒  
 限한 채 오직 몇 개의 曲線이나 方程式만으로써 케인즈體系를 理解하였다. 이러한 傾向은 특  
 사뮤엘슨, 토빈(J. Tobin), 헬러(W. W. Heller) 등의 經濟學者들이 케네디 및 존슨行政府  
 經濟諮問委員으로 登用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의 소위 新經濟學은 1964  
 減稅政策이 景氣回復에 成功을 거둠으로써 一躍 聲價를 올렸지만 4년마다 닥치는 選舉  
 意識하지 않을 수 없는 政治權力的 要求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長期的, 歷史的 眼目を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었고 오직 短期的인 處方만을 마치 萬能藥인양 濫用하였던 것이  
 다. (15) 新經濟學者들의 關心이 얼마나 短期的이고 姑息的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낸  
 景氣調節](fine tuning)이란 用語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姑息的 經濟政策의 必然  
 所産으로서 나타난 것이 1960年代 後半부터 慢然된 스태그플레이션, 環境汚染, 資源枯  
 竭 등 一聯의 事態이다. 이에 대해서 로빈슨女史는 雇傭의 量만을 따지고 그 質을 생각하지  
 않은 庶出케인지안들을 맹렬히 非難하면서 經濟理論의 第2의 危機를 경고하고 있는 것  
 다. (16)

上述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要因이 理論的 側面에 加勢하여 複合的으로 作用함으로써 케  
 인즈革命의 意義는 『一般理論』 出刊 30年 뒤에는 거의 抹殺되어 버리고, 新古典派에 의한  
 케인즈反革命이 成功을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狀況을 背景으로 하여 1965年「케인  
 즈反革命——그 理論的 評價」라고 하는 클라우어의 斬新한 論文이 發表되었고, 이를 包括  
 하면서 케인즈經濟學을 全面的으로 再解釋한 라이온후푸드의 勞作 『케인지안의 經濟學과  
 케인즈의 經濟學』이 1968년에 出版되었던 것이다.

### III.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의 骨子

라이온후푸드의 著書는 그 題目이 벌써 暗示하듯이 케인지안의 經濟學과 케인즈의 經濟  
 學을 確然히 區別함으로써 우선 讀者에게 큰 衝擊을 준다. 그는 케인지안의 經濟學, 즉  
 S-LM模型 또는 所得一支出理論은 케인즈經濟學의 眞髓를 올바르게 傳達해 주지 못할 뿐더  
 러 理論經濟學에 대한 케인즈의 獨創的이고도 重要的 貢獻을 오히려 糊塗, 歪曲시켰다고  
 강력히 批判하면서 既存의 標準的인 케인즈經濟學 解釋을 代替할만한 새로운 解釋을 試圖하

(15) R. X. Chase, "Keynes and the U.S. Keynesianism: A Lack of Historical Perspective and the Decline of the New Economics", *Jour. of Econ. Issues*, Sep. 1975. 이와 반대로 新經濟學을 擁護하는 立場에서 쓴 J. Tobin, *The New Economics: One Decade Older*, Princeton, 1974도 참조하라.

(16) J. Robinson,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다. 그의 著書는 부피가 방대할 뿐 아니라 內容이 매우 難澁하여 理解하기 어려운 데 한 두 군데가 아니지만 이하에서 그 特色만을 간략히 紹介하기로 한다.<sup>(17)</sup> 이하 다섯 개 項目은 說明의 편의상 나누어본 데 지나지 않는다.

### 1. 不完全한 情報과 數量調節

統的인 新古典派理論體系에서 가장 精巧한 理論模型 중의 하나인 完全競爭模型에서 모 來者는 각자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價格受容者(price taker) 本質을 가지고 있다. 이 模型에서는 需要와 供給이 항상 一致하는데 만약 市場에 어떤 이 發生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새로운 均衡水準으로 價格이 調節되고 새로운 均衡價格에서 모든 去來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描寫된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市場均 維持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均衡價格이 어떤 水準일 것인가를 즉시 알아야 하며, 이를 서는 現實의 交換過程 이외의 무슨 方途에 의해 完全한 情報가 아무런 費用없이 모든 者들에게 普及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條件을 充足시키기 위해 考察된 것이 다름 왈라스의 「摸索」(tâtonnement)이다. 왈라스는 원래 交換理論에서 抽象적이고 數學的 一般均衡模型에 약간이나마 現實性을 賦與하기 위해서 摸索의 理論을 도입하였는데 의 交換過程은 一般均衡模型의 聯立方程式의 解를 구하기 위한 反復的인 摸索過程으로 된다.<sup>(18)</sup> 여기에는 競賣인이 存在하여 均衡價格을 찾아내는 機能을 遂行하며 그것이 發 뒤에 비로소 實際 去來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不均衡去來가 發生할 餘地는 전혀 없다. 일 이와 같은 競賣인이 存在한다면 어떠한 市場攪亂이 發生하더라도 價格이 순간적으로 水準으로 調節될 것이므로 超過需要나 超過供給, 失業 따위의 現象은 결코 일어나지 것이다. 그러나 現實世界는 이와 다르다. 全知의 競賣인은 왈라스의 머리 속에서만 할 뿐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사는 現實에는 그러한 救世主가 결코 存在하지 않는다.

이온후푸드는 케인즈의 經濟學이 新古典派經濟學과 本質적으로 差異가 있다면 그것은 스의 競賣人이란 假定을 廢棄한 데 있다고 한다. 競賣인이 없는 世界, 바꾸어 말하면 不完全한 世界에서는 價格이 순간적으로 調節될 수가 없고 價格과 數量이 함께 調 다.<sup>(19)</sup> 여기에서 不均衡價格下에서의 不均衡去來가 이루어지게 되고 超過需要나 超過

7) 상세한 것은 拙稿, 「케인즈失業理論의 再解釋: R. W. Clower와 A. Leijonhufvud의 所論을 中心으로」,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3 참조. 本章은 이 論文의 第3, 4, 5章을 修正, 加筆하여 다소 發展시킨 데 지나지 않는다.

8) W. Jaffé, "Walras' Theory of Tâtonnement: A Critique of Recent Interpret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Feb. 1967, p. 2.

9) 라이온후푸드는 短期에서 價格이 먼저 調節되고 난 뒤 數量이 調節되는 마찰의 調節順位가 케인즈에 와서는 逆轉된다는 점을 強調한다. A. Leijonhufvud, *op. cit.* (1968), pp. 24, 52-53.

供給 또는 失業이란 現象이 必然的으로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情報가 不完全한 市場에 있어서의 資源의 失業을 최초로 分析한 사람은 알치안(A.A. Alchian)<sup>(20)</sup>인데 라이온후푸드는 이를 케인즈의 失業理論의 解釋에 援用함으로써 貨幣의 硬直性이란 假定 없이도 情報가 不完全함으로 인해 失業이 發生한다는 事實을 論證하고 있다.

## 2. 消費函數와 乘數의 本質

알라스流의 一般均衡模型에서는 모든 去來者들의 需要·供給計劃이 價格의 函數로 되어 있다. 超過需要가 있는 市場에서는 價格이 上昇하고 超過供給이 있는 市場에서는 價格이 下落하여 모든 市場의 需給을 一致시키는 均衡價格벡터가 찾아졌을 때 去來는 원래의 計劃대로 實行되고 經濟는 一般均衡의 狀態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一般均衡模型은 文字 그대로 均衡狀態의 理論으로서는 滿足할만 하지만 不均衡狀態의 說明에는 전혀 適用될 수 없는 難點이 있다.

不均衡狀態에서는 우리는 計劃된 去來와 實現된 去來를 區別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不均衡狀態에서는 어떤 去來者의 計劃된 去來에 蹉跌이 생겨 兩者 사이에 乖離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 不完全한 情報로 인해 어떤 市場에 超過供給이 發生하였다고 한다면 供給者 중에는 원래 供給函數에서 計劃하고 있던 販賣를 제대로 實現할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家計의 消費計劃은 所得의 制約을 받는다고 假定<sup>(21)</sup>하면 이 사람은 원래 自己의 需要函數에서 計劃하고 있던 購買도 역시 實現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狀態가 發生하는 경우 價格만의 函數로 되어 있는 正統의 理論의 需要는 購買力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觀念需要(notional demand)에 불과할 뿐이지 有效需要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變化한 狀況에 맞추어 自身의 需要函數를 새로 決定하지 않으면 안되는데<sup>(22)</sup> 새로운 需要函數에는 價格벡터 이외에 이 사람의 實現된 所得이란 새로운 變數가 追加로 導入된다. 이 函數는 觀念需要函數와 대비하여 有效需要函數라고 불리운다.

그런데 家計의 消費가 實現된 所得의 制約을 받는 函數란 바로 다른 아닌 케인즈의 消費函數 그것이다. 이러한 消費函數는 實現된 所得이 計劃된 所得과 乖離하는 不完全雇傭狀態에서 비로소 그 意味를 가진다. 반대로 完全雇傭의 狀態에서는 모든 家計의 實現된 所得이

(20) A.A. Alchian, "Information Costs, Pricing, and Resource Unemployment", *Western Econ. Jour.*, June 1969.

(21) 클라우어는 이것을 「세이의 原理」라 부르는데 이는 豫算制約式을 意味하고 있다. R.W. Clower, *op. cit.*, p. 285.

(22) 클라우어는 이것을 再次意假說(dual decision hypothesis)라고 부른다. *ibid.*, p. 287—90.

된 所得과 一致하므로 所得이 消費를 制約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完全雇傭에서는 價格이 唯一한 獨立變數가 되어 있는 一般均衡模型이 成立하지만 일단 失業이 하면 實現된 所得이 消費를 制約하므로 이 模型은 妥當性을 잃게 된다.

상이 케인즈의 消費函數에 대한 클라우어의 斬新한 解釋인데 라이온후푸드는 이를 케인즈論에 있어 革命的인 概念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의 市場에서 發生된 均衡이 다른 市場으로 波及되어가는 過程을 說明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勞動에서 失業이 發生하면 失業者의 家計에서는 消費가 減少할 것이다. 이러한 有效需要의는 다른 市場으로 波及되어 거기에서도 失業을 惹起시킬 것이다. 이것은 케인즈가 이하는 乘數過程과 거의 一致한다. 물론 이런 累積的 過程이 無限히 繼續하는 것은 아니 이것은 분명히 최초의 攪亂이 擴大되어가는 反作用過程이다. 이와 같이 經濟가 일단 雇傭均衡에서 離脫하였을 때 惹起되는 離脫擴大的 乘數過程이야말로 數量調節을 特徵하는 케인즈經濟學에서 볼 수 있는 고유한 現象인 것이다.

### 3. 貨幣經濟에 있어서의 알라스法則의 崩壞

근 考察한 乘數過程이 끝나 失業이 더 이상 擴大하지 않고, 貯蓄과 投資가 事前的으로 하게 된 時點에서의 經濟體系의 狀態를 살펴 보자. 라이온후푸드에 의하면 이런 狀態一般均衡理論과 케인즈理論에서 각각 달리 把握된다고 한다.

저 一般均衡理論에 따를 것 같으면 지금 物價와 賃金의 一定한 價格벡터하에서 勞動力에서는 超過供給이 있고, 이에 對應하여 財貨市場에서는 超過需要가 있다. 이때 超過의 合計는 알라스의 法則에 따라 0이다. 그러나 이러한 狀態는 오래 持續할 수가 없 왜냐하면 알라스의 競買人이 超過需要의 狀態에 따라 賃金を 下落시키고 財貨價格을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勞動力의 超過供給과 財貨에 대한 超過需要는 동시에 減少하는데 이러한 摸索過程은 經濟全體의 一般均衡을 保證해 줄 價格벡터가 發見될 때 계속된다. 이와 같이 一般均衡理論에서는 完全雇傭으로부터 一時的으로 離脫하는 일이더라도 곧 完全雇傭均衡을 回復시키는 離脫相殺的 反作用過程이 일어나는 것으로 說明.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는 現實과는 距離가 먼 虛構性이 內在되어 있으니 그것은 不沉物價가 上昇한다는 일은 正常的으로는 있을 수 없는 現象이기 때문이다.

와는 달리 케인즈流의 失業狀態에서는 勞動力의 超過供給이 財貨에 대한 超過需要를 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財貨에 대한 失業者의 需要는 有效需要가 아니라 觀念需要에 하기 때문이다. 만일 失業者가 勞動力을 提供한 댓가로서 現物의 形態로 賃金を 받을 수 있다면 企業家は 失業者의 提議를 自己의 製品에 대한 有效需要로 看做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貨幣經濟에 있어 鋼鐵製造業者는 勞動者에게 鋼鐵을 賃金으로서 支拂할 수 없고 勞動者도 自己 家族에게 鋼鐵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勞動者는 당연히 貨幣賃金을 要求한다. 그러나 企業家의 立場에서 볼 때, 이 勞動者를 雇傭하여 生産할 製品에 대한 販路가 保障되지 않는 한 아무리 낮은 賃金을 要求하더라도 새로운 勞動者를 雇傭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失業者는 鋼鐵과 빵 따위를 必要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觀念需要에 불과할 뿐, 그의 意思는 鋼鐵이나 빵의 生産者에게 傳達되지 않는다. 企業家에게는 貨幣를 보는 눈은 있되 失業者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는 눈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케인즈의 理論體系에서는 勞動力の 超過供給은 있지만 그에 對應할 超過需要가 어느 市場에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면 經濟全體의 超過需要의 合計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분명히 왈라스法則의 否定이다. 클라우어는 세이法則에 대한 케인즈의 執拗한 攻擊은 랑게(O. Lange)가 말하는 세이法則이 아니라 왈라스法則이라는 恒等式<sup>(23)</sup>에 대한 批判으로 理解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클라우어에 의하면 왈라스法則은 物物交換經濟에서는 恒等式임에 틀림없지만 貨幣經濟에서는 恒等式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貨幣經濟에 있어서의 왈라스法則은 完全雇傭均衡에서는 成立하지만 방금 고찰한 바와 같은 理由에 의해 일반적으로 不完全雇傭狀態에서는 成立하지 않는 것이다. 케인즈의 理論體系에서 왈라스法則이 무너지는 理由는 케인즈가 基本的으로 貨幣經濟를 그 分析對象으로 삼았고 거기에서는 不完全雇傭狀態가 一般的인 現象이기 때문이다.<sup>(24)</sup> 여기에서 클라우어는 놀라운 結論을 이끌어 내고 있다. 즉 케인즈經濟學은 왈라스法則 없는 價格理論이며 왈라스法則을 가지는 價格理論은 케인즈經濟學의 特殊境遇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再解釋이 옳다면 케인즈經濟學은 新古典派經濟學을 完全雇傭에서만 成立하는 特殊理論으로서 包括하는 하나의 一般理論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 4. 貯蓄・投資와 流動性選好

우리는 방금 세이法則에 대한 케인즈의 批判이 랑게의 用語로 말한다면 왈라스法則에 대한 批判으로 理解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고 貨幣經濟에 있어서는 왈라스法則도 崩壞한다는 점을 考察하였다. 그런데 新古典派理論에서는 세이法則을 異時的으로 適用한 것이 있는

(23) 이는 “供給은 스스로의 需要를 創造한다”는 세이法則을 總供給과 總需要의 恒等關係로 把握함을 意味한다. O. Lange, “Say’s Law: A Restatement and Criticism” repr. in *Papers in Economics and Sociology*, Pergamon, 1970 참조.

(24) 新新古典派가 本質적으로 物物交換經濟를 分析對象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케인즈는 어디까지나 貨幣經濟의 理論을 提示하고 있다는 점이 強調될 必要가 있다. R.W. Clower, “A Reconsideration of the Microfoundations of Monetary Theory”, 1967, repr. in *Readings in Monetary Theory*, Penguin, 1969 및 P. Davidson, *op. cit.* 참조.

그것은貯蓄이 利率이란 媒介體를 통해 自動的으로 投資로 轉換된다는 命題이다. 그 세이法則은 異時的으로든 同時的으로든 貨幣經濟에서는 成立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이푸드에 의해 指摘되고 있다.

蓄이란 다 아는 바와 같이 장래 언젠가 더 많이 消費하기 위해 現在의 消費를 줄이는 이다. 그러므로 經濟의 理想的인 異時的 均衡을 위해서는 家計의 貯蓄決意에 대해 生는 未來에 增加할 消費財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한 準備로서 現在의 消費財生産으로부터 財生産으로 資源을 移轉시켜야 한다. 그런데 貯蓄家들은 보통 未來에 需要할 特定的의 財 미리 念頭에 두고 貯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富 그 自體」 즉, 「不特定的 時期 不特定的 財貨를 살 수 있는 潜在力」<sup>(25)</sup>을 保有한다. 이것은 廣義의 流動性選好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貯蓄을 增加시키는 경우 消費財에 대한 需要減少의 衝擊은 生에게 어김없이 傳達되지만 消費財의 生産을 減少시키는 데서 發生하는 遊休資源을 入門에 再雇傭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줄 市場信號는 生産者에게 傳達되지 않는 데 問題 있다. 投資家들이 市場信號를 받지 못하는 理由는 貯蓄家들이 信號를 보내지 않기 때문 이리하여 貯蓄行爲에 內在하고 있는 未來需要는 生産者에게 有效需要로서 傳達되지 것이다.

렇다고 해서 貯蓄의 投資에로의 轉換이 전혀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增加한 證券에 대한 需要增加를 통해 利率을 下落시키고 이는 다시 投資를 增加시킬 수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流動性選好가 問題가 된다. 利率이 下落하면 사람 過去의 「正常的」水準에 비추어 現在의 利率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게 된다. 케인즈의 所有者는 記憶력이 좋기로 유명하므로 그들은 장래에 利率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期 다. 바꾸어 말하면 케인즈의 社債所有者의 價格期待는 非彈力的이다.<sup>(26)</sup> 따라서 그들 本損失을 피하고 장래에 더 낮은 價格으로 證券을 되사기 위해 證券을 팔 것이다. 그 로 利率은 完全雇傭을 保障할 낮은 水準까지 下落하지 못하게 되고 失業의 發生은 도리가 없다.

### i. 金融政策論과 富效果

므로 이상의 諸論議만큼 重要하지는 않으나 金融政策의 效果와 富效果에 관한 케인즈

<sup>25</sup> J.M. Keynes, *op. cit.*, p. 210, 211.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에서는 價格期待의 非彈力性이 매우 強調되고 있다. 이와 關連하여 케인즈가 時間을 어떻게 取扱하였나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A. Asimakopoulou, "Keynes, Patinkin, Historical Time, and Equilibrium Analysis," *Canadian Jour. of Economics*, May 1973을 보라.

見解에 대해서도 라이온후푸드는 새로운 解釋을 내리고 있으므로 몇 마디 摘記해 둔다. 흔히 美國 케인지안들의 政策觀은 財政政策을 信奉하는 대신 「貨幣는 重要치 않다」든가 「極端的으로는 「金融政策無用論」이라는 敎理로 表現되며 이러한 立場은 당연히 『一般論』을 그 淵源으로 하는 것처럼 解釋된다. 그러나 이러한 通說은 IS-LM模型에 의한 케인즈理論의 靜學的 解釋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IS-LM模型에 의한 財政·金融政策의 效果 論議는 經濟의 過去狀態나 現實의 特정한 歷史的, 政治的 關係를 전혀 考慮에 넣지 않으며 그 結論은 마치 普遍的 眞理인양 導出된다. 라이온후푸드에 의하면 이에 대해 케인즈는 여러가지 現實의 條件을 考慮하고 있었다고 한다.<sup>(27)</sup>

첫째, 케인즈가 金融政策의 效果 그 自體를 否定한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1930年代와 같은 恐慌의 深淵에서의 景氣回復의 열쇠는 企業家의 悲觀的인 期待를 刺戟시켜 줄 財政政策이라는 事實을 強調하였을 뿐이라는 점이다.

둘째, 케인즈는 金融政策을 重視하여 언제나 低利子率 政策을 勸告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執行에 옮겨야 할 中央銀行當局의 微溫的 態度에 깊은 不信을 갖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金融政策 自體에 대한 不信은 결코 아니다.

셋째, 流動性陷穽과 投資의 利子率彈力性에 대한 케인즈의 見解는 케인지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케인즈 自身은 流動性陷穽을 未來의 問題로 看做하였고 現在에는 아직 그러한 것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이온후푸드에 의하면 케인즈 理論에 있어 投資는 매우 利子率彈力的인데 이는 케인즈가 想定한 代表的인 資本財의 平均 壽命이 길다는 점과 케인즈의 巨視模型의 集計의 特性에서 誘導되는 必然的인 結果라고 한다. 巨視模型의 集計의 特性에 대해 좀 더 敷衍하여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經濟의 財貨 및 用役을 크게 보아 消費財, 資本財, 勞動力, 社債, 貨幣의 다섯 가지라고 假定할 때 所得一支 出理論에서는 이 중 消費財와 資本財를 함께 集計하여 單一商品으로 보는 데 반해 케인즈는 資本財와 社債를 함께 集計하는데 이는 두 財貨가 공통적으로 長期的 性質을 띄고 있고 兩者 사이의 代替性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케인즈의 理論體系에서 利子率이 下落하면 사람들은 社債 대신 資本財를 購入하는 것이 利得이 될 것이므로 이는 곧 投資增加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傾向은 資本財의 長期的 性質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두 가지 假定에서 라이온후푸드는 케인즈가 投資를 대단히 利子率彈力的으로 看做했음

(27) A. Leijonhufvud, "Keynes and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1968. repr. in Mittra (ed.), *Dimensions of Macroeconomics: Readings*, Random House, 1971. 이러한 主張은 최근 모그릿지와 호손에 의해 다시 確認되고 있다. D.E. Moggridge and S. Howson, "Keynes on Monetary Policy, 1910-1946", *Oxford Economic Papers*, July 1974.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라이온후푸드의 세번째 論旨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듯이 생각되지만 어쨌든 케인즈가 의인 IS-LM模型과는 달리 훨씬 복잡하고도 현실적인 考慮 위에서 金融政策의 效果를 하였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로 認定해야 할 것 같다.

으로 富效果에 대해 檢討해 볼 것 같으면 흔히 케인즈는 피구效果, 또는 보다 廣義로 여 富效果를 無視한 점에서 理論적으로 큰 缺陷을 가지고 있다는 攻擊을 받는다. 이에 라이온후푸드는 케인즈가 富效果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重要性도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解釋하고 있는데<sup>28)</sup>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인즈는 消費函數의 分析에 있어서 消費性向의 短期的 變化를 일으키는 主要要因의 하서 資本價値의 突發的 變動을 들고 있다. 그런데 短期에 있어 資本의 限界效率이 一定하고 假定하면 資本價値는 利率과는 反對方向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利率이 下落 資本價値가 增加하고 따라서 消費가 增加하는데 이것이 바로 케인즈가 생각한 富效果는 것이다. 이러한 利率—富—消費(貯蓄)의 傳達機構를 라이온후푸드는 橫財效果 (fall effect)라고 부르고 있다. 만일 이러한 解釋이 옳다고 하면 케인즈에 있어서는 貯蓄이 모두 利率에 대해 彈力的인 性質을 갖는 셈이 된다.

#### IV.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의 問題點

상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라이온후푸드는 알치안이나 클라우어의 先驅의 業績을 충분히 1), 包括하면서 케인즈經濟學을 全面的으로 再解釋하였다. 그의 主張에 따를 것 같으면 케인즈가 理論經濟學에 끼친 貢獻은 既存의 케인즈解釋에서 볼 수 있듯이 賃金の 硬直性이 流動性陷弊, 貯蓄·投資의 利率非彈力性과 같은 몇가지 制限的 假定을 正統派理論에 1)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新古典派의 理論自體를 근본적으로 變革시켰다는 것이다. 즉, 케인즈理論은 비록 形式的으로는 傳統的인 靜學的 分析道具를 그대로 답습하였지만 그 內容에 있어서는 失業이라고 하는 經濟의 不均衡現象을 動學的으로 分析하였고 그 결과 케인즈의 一般均衡理論을 完全雇傭에서만 成立하는 하나의 特殊理論으로 包含하는 經一般不均衡理論을 最初로 確立하였다는 것이다.

8) 페세크와 세이빙 그리고 그람도 이와 같은 見解를 가지고 있다. B.P. Pesek and T.R. Saving, *Money, Wealth, and Economic Theory*, Macmillan, 1967, 第1章. W.P. Gramm, "Keynes and the Real Balance Effect: A Note", *Manchester School*, Dec. 1968. 그러나 이에 대한 反駁으로서 는 J. S. Flemming "Wealth Effects in Keynesian Models", *Oxford Economic Papers* July 1974 및 D. Patinkin, "Keynes' Monetary Thought: A Study of its Developmen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Spring 1976, pp. 110-11을 보라.

이러한 再解釋은 그 結論에 있어 종래의 解釋과는 전혀 대립될 뿐만 아니라 所得—支出理論이라고 하는 現代經濟學의 標準的인 分析道具에 대해 激烈한 批判을 가한 점에서 學界에 크나큰 衝擊을 안겨 주었다. 따라서 라이온후푸드의 著書는 最近에 發表된 貨幣理論이나 巨視理論의 單行本이나 論文에서 빈번히 引用 또는 言及될 만큼 많은 反響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열렬한 支持와 贊辭를 받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指摘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로스만(H.I. Grossman), 예거(L.B. Yeager), 잭크만(R. Jackman), 브로쓰웰(J.F. Brothwell) 등의 批判을 中心으로 하여 라이온후푸드의 케인즈經濟學 再解釋上的 몇 가지 問題點을 指摘해 보기로 한다.<sup>(29)</sup>

첫째, 라이온후푸드는 케인즈經濟學이 그 內容에 있어 케인즈의 所得—支出理論과는 異異하게 다르다고 主張하는데 사실 兩者는 大同小異한 것이 아닌가고 疑心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케인즈는 『一般理論』 第18章에서 自身の 理論을 要約하기를 세 가지의 基本的인 心理要因 즉, 消費性向, 流動性選好, 資本의 限界效率, 그리고 賃金單位와 通貨量이 궁극적으로 國民所得과 雇傭의 크기를 決定한다고 하는데<sup>(30)</sup> 이는 곧 標準的인 所得—支出理論의 基本的인 思考方式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라이온후푸드의 解釋이 眞正을 다고 한다면 케인즈는 알라스의 競賣人이라든가 情報, 價格調節, 再決意, 一般不均衡 등의 概念에 대해 적어도 비슷한 用語로나마 表現했어야 할텐데 유감스럽게도 케인즈의 著書에서는 이들 表現을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매우 近似한 것이 있다면 케인즈는 情報의 不完全性이란 用語는 使用하지 않았지만 그대신 不確實性이란 概念은 매우 強調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乘數過程을 離脫擴大的 反作用過程으로 보는데는 贊成한다고 하더라도 케인즈의 엄밀히 數學的인 乘數概念과는 距離가 먼 것 같아서 케인즈는 오히려 所得—支出理論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어쨌든 클라우어와 라이온후푸드도 自己들의 解釋과 케인즈理論과의 符合性 與否에 대해서는 큰 自信이 없는 듯하다. 예컨대 클라우어는 自己의 消費函數解釋을 擁護하면서 「만일 케인즈가 再決意假說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一般理論』의 대부분은 無意味해진다」고 하여 억지로 正當化하고 있는가 하면 라이온후푸드도 「自己의 再解釋이 모두 케인즈에게서 發見될 수 있다고 主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後退하고 있다.<sup>(31)</sup>

(29) H.I. Grossman, "Was Keynes a Keynesian?: A Review Article", *Jour. of Econ. Lit.*, Mar. 1972. L. B. Yeager, "The Keynesian Diversion", *Western Econ. Jour.*, June 1973. R. Jackman, "Keynes and Leijonhufvud", *Oxford Economic Papers*, July 1974. J.F. Brothwell, "A Simple Keynesian's Response to Leijonhufvud", *Bull. of Econ. Res.*, May 1975.

(30) J.M. Keynes, *op. cit.*, pp. 245-47.

(31) R.W. Clower, *op. cit.*, p. 290. A. Leijonhufvud, *op. cit.*, (1968) p. 11.



제, 라이온후푸드는 不完全한 情報의 概念을 導入하여 價格이 伸縮的으로 調節되지 않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銳利한 發見이며 적어도 賃金과 利子率에 관한 케인즈의 思考方式과도 어느 정도 符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擴大시켜 케인즈가 모든 市場에서 價格이 非伸縮的으로 움직인다고 想定했던 것처럼 解釋 것은 不當하다. 그로스만이 일찌기 指摘한 바와 같이 케인즈는 一般財貨의 價格은 伸縮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想定하고 있었던 것 같으니 그 根據로서는 實質賃金이 雇傭水準(對方向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케인즈의 主張을 들 수가 있다. 財貨價格이 非伸縮的인 경우에는 결코 實質賃金이 그렇게 變動할 수 없을 것이다.

제, 라이온후푸드는 情報의 不足으로 인한 探索失業(search unemployment)을 대단히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一時的인 摩擦的 失業으로서 케인즈가 問題로 삼았던 發見的 失業과는 定義上 전혀 性質을 달리 하는 것이다. 그리고 探索失業의 狀態에 있는 者는 스스로 종전의 就業時에 비해 經濟的인 地位가 惡化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消費支出을 줄일 理由가 없지 않는가?

제, 新古典派理論이 物物交換經濟를 分析對象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케인즈理論은 本으로 貨幣經濟의 理論이며 거기에서는 貨幣가 매우 重要的 役割을 遂行한다는 命題는 것으로 認定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金融政策의 效果, 바꾸어 말하면 通貨量이 雇傭所得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이 두 命題는 전혀 別個의 性質으로 嚴密히 區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와 關聯된 問題로서 IS-LM模型이라고 만드시 金融政策이 無用하다는 結論이 導出되는 것은 아니라는 反駁이 提起될 수 있 金融政策의 效果는 어디까지나 IS-LM模型을 構成하는 諸曲線의 모양과 기울기에 對하여 달려 있으므로 만일 批判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假定이지 IS-LM模型 自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잭크만과 브로쓰웰의 主張인 것이다.

셋째, 利子率과 投資와의 關係에 대해 라이온후푸드는 케인즈에 있어 投資의 利子率彈力이 매우 높다고 解釋하는데 그 理論의 根據는 上記한 바와 같이 첫째 케인즈는 社債와 財를 한몫음으로 集計하였다는 것과 둘째, 케인즈에 있어서 資本財는 平均壽命이 매우 큰 두 가지 假定이다. 그러나 잭크만이나 브로쓰웰이 指摘하듯이 애당초 다섯개 중 두 財貨를 集計해야 할 必然的인 理由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集計해야 한다면 相互密接한 代替性이 없는 社債와 資本財를 集計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所得—支出理論에 對하여 資本財와 消費財를 集計하는 편이 더 妥當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둘째로 資本財의 對해서도 在庫品이나 半製品, 人間資本 따위를 考慮할 때, 그것이 만드시 長期的 性

質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疑心스럽다. 더욱 問題가 되는 것은 실사 라이온후푸드가 提示한 두 가지 假定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投資의 利率彈力性이 과연 두가지 假定에서 先驗적으로 導出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投資의 利率彈力性이란 어디까지나 經驗적으로 檢證되어야 할 問題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온후푸드는 「그것을 經驗的 問題라고 主張한다면 이는 經濟理論全般에 대한 信念의 完전한 缺乏을 暴露하는 것일 따름」<sup>(32)</sup>이라고 까지 極言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이에 同意할 수 없다.

여섯째, 라이온후푸드는 케인즈가 流動性陷穽의 可能性을 否定하였다고 하면서 『一般理論』에서 한 句節을 引用하고 있는데 이 問題에 관한 케인즈의 見解는 그렇게 確實치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一般理論의 다른 部分에 가서는 케인즈는 「一般的인 富의 所有者에게 容認될 수 있는 最低利率이야말로 現代經濟에 있어서나 또 將來에 있어서나 가장 安定的이며 變化하기 힘든 要素」(『一般理論』, p. 309)라고 말하는가 하면 「流動性選好가 絶對적으로 되는 利率」(『一般理論』, p. 191)에 대해 言及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케인즈가 流動性陷穽의 可能性을 완전히 否定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곱째, 利率과 貯蓄과의 關係에 대해 라이온후푸드는 橫財效果라고 하는 一種의 富效果를 導入하여 케인즈에 있어 貯蓄은 상당히 利率彈力的이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問題가 있다. 우선 이러한 富效果가 成立하기 위해서는 資本財의 平均壽命이 사람들의 消費時限(consumption time-horizon)보다 길어야 하는데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이는 매우 疑心스럽다. 그리고 케인즈가 당시에 벌써 이렇게 抽象적이고 세련된 分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역시 疑心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富效果의 發見은 역시 라이온후푸드 自身の 功績으로 돌림이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여덟째, 라이온후푸드는 失業不均衡狀態에서도 完全雇傭을 保障할 均衡價格벡터는 항상 存在하는데 問題는 그것을 發見해 줄 알라스의 競賣人이 存在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케인즈는 完全雇傭을 保障할 均衡價格벡터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 非自發的 失業이란 概念과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問題는 알라스의 競賣人이 없는 世界에서 어떻게 하여 價格벡터가 均衡水準으로 調節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競賣人조차도 束手無策인 그러한 狀況에서 經濟가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32) A. Leijonhufvud, *ibid.*, p. 179.

## V.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의 意義와 限界

에서指摘한 여러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온후푸드의 케인즈 再解釋은 正統的 케인즈解釋에 대한 果敢한 挑戰 그리고 그 참신한 視角과 깊은 洞見으로 인해 經濟學界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쳤다고 評價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이 과연 케인즈經濟學의 진정한 모습을 그대로 再生시켜 주었는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그 뒤 여러 사람의 批判에 볼 수 있듯이 오히려 否定的인 쪽으로 大勢가 기울었지만 사실 케인즈가 당시의 靜學的 分析道具를 가지고 그렇게나 動學的인 高級理論 開闢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케인즈의 基本的인 思考方式은 언 現實에 뿌리박고 있었던 만큼 어느 程度 動學的인 思考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 그러므로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은 微細한 理論의 하나 하나에 있어서는 케인즈의 多少 距離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論旨의 큰 테두리에 있어서는 대체로 正鵠을 찌른 程度 評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學說史의 問題는 일단 뒤로 물리더라도 라이온후푸드의 業績은 여러 方面에서 그 眞價가 發揮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重要한 意 學說史的 研究의 價値보다는 經濟學의 앞으로의 發展을 위해 일정한 契機를 마련해 준 功 發見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 몇 가지만 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1) 經濟의 不均衡理論의 發展에 큰 刺戟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理論經濟學의 歷史에 新古典派理論이 確立된지 100년이란 歲月이 흐르는 동안 經濟學의 가장 基本的인 概 物理論에서 借用해온 均衡이란 概念이었다. 이것은 원래 시계추의 往復運動에서 類推 나온 概念으로서 로빈슨女史의 말을 빌리자면 “過去는 돌이킬 수 없고 未來는 알 수 時點으로서의 現在”라고 하는 歷史的 時間을 그 分析對象으로 삼는 經濟學과는 本質 兩立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世代 동안 經濟學者들의 머리를 완전히 支配해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로빈슨女史는 均衡의 概念을 科學이 아닌 一種의 神話라고 기 攻擊하고 있지만<sup>(33)</sup> 최근에 와서 均衡經濟學에 대한 批判은 날로 高潮되어 가는 느 있거니와 라이온후푸드의 不均衡理論의 展開는 앞으로의 不均衡理論 定立에 하나의 를 다져 준 것으로 생각된다.

2) 라이온후푸드와 클라우어의 業績은 微視經濟學과 巨視經濟學의 統合의 可能性을 보 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微視經濟學에 있어서의 需要는 價格의 函數로서, 그리고 巨

33) J. Robinson, *op. cit.* (1973) 및 “Economics Today” in *Collected Economic Papers*, Vol. IV, Basil Blackwell, 1973 참조.

觀經濟學에 있어서의 消費는 所得의 函數로서 각각 理解되고 있었고 兩者 사이에는 아무런 關聯도 없는 것처럼 分離되어 있었는데, 클라우어에 의한 消費函數의 새로운 解釋은 兩者 사이의 關係를 처음으로 解明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그 뿐만 아니라 價格調節과 數量調節, 알라스와 케인즈의 理論對比, 利率을 통한 富效果등의 발견등도 역시 이에 기여할 것이다.

세째, 經濟學의 諸學派의 勢力版圖에 다소의 變動을 가져올지 모른다. 正統의 新古典派 理論을 그대로 繼承·精緻化시키면서 동시에 IS-LM模型과 高度의 數學을 主武器로 삼고서 現代經濟學의 主流를 形成하고 있는 新新古典派 또는 新經濟學의 猛省이 促求되는 한편 左로는 로빈슨女史와 같은 新케인즈派와 右로는 프리드만을 비롯한 通貨主義派의 地位가 어느 程度 上昇할런지 모른다. 이러한 影響은 앞에서 指摘한 두 가지의 理論的 側面과는 전혀 次元이 다른 것이지만 이 점도 理論의 發展 못지 않게 重要한 意義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經濟學의 論爭은 항상 理論의 假面을 쓰고 展開되지만 實相은 勢力 또는 이데올로기의 鬭爭인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論議에 비추어 볼 때 라이온후푸드의 再解釋을 가리켜 「記念碑的 業績」<sup>(35)</sup>이라고 激讚한 존슨(H.G. Johnson)의 말도 결코 지나친 讚辭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점에서 라이온후푸드의 業績의 卓越性을 충분히 認定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한편 그것이 가지는 限界를 아울러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라이온후푸드는 케인즈 以前의 正統의 新古典派理論중 상당한 部分을 그대로 認定하고 있다. 예컨대 投資와 貯蓄이 利率에 敏感하게 反應한다고 主張하면서 이의 證明에 수많은 페이지를 割愛하고 있는데 이는 投資·貯蓄의 利率非彈力性을 假定한 종래의 케인즈解釋을 反駁하려는 意圖에서 빚어진 結果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強調된 나머지, 現實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케인즈의 思考와도 상당히 距離가 먼 結論이 얻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라이온후푸드는 失業不均衡狀態에서도 항상 完全雇傭을 保障해 줄 均衡價格배터가 存在한다고 생각함으로써 一般均衡論的 思考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存在할런지, 그리고 설사 存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意味를 지니는지 疑問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라이온후푸드는 通貨主義派에 상당히 가까운 立場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케인즈와 케인지안을 峻別하여 케인즈를 通貨主義派의 先驅者로 모셔 가려는 듯한 印象을 주는가

(34) A.G. Hines, *On the Reappraisal of Keynesian Economics*, Martin Robertson, 1971 참조.

(35) H.G. Johnson, "The Keynesian Revolution and the Monetarist Counterrevol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1.

貨幣와 金融政策의 重要性을 매우 強調한다든지 1930年代의 大恐慌에 대해 通貨主義 見解에서 接近한다든가 富, 資本, 期待, 情報, 探索失業등 通貨主義派에서 즐겨 使用하 念을 빈번히 採擇하고 있는 점 등에서 미루어 볼 때 라이온후투드를 通貨主義者로 規는 것은 아직 時期尙早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상당히 接近해 있는 것만은 分明하<sup>6)</sup> 이 점을 왜 그의 限界로 指摘하느냐 하면 그 역시 通貨主義派가 가지는 保守的의 性로 기울게 되지 않을까 하는 杞憂에서이다.

재, 라이온후투드는 IS-LM模型에 의한 케인즈解釋에 대해 매우 批判的인 立場에서 出고 있으면서도 그의 政策觀에 있어 결국 그와 매우 近似한 結論에 到達하고 있는 점이 된다. 이것은 完全雇傭의 부근, 즉 그가 말하는 回廊(corridor)의 内部에서는 民間의 性이 비교적 豊富하므로 金融政策이 有效한데 비해 不況이 심한 경우, 즉 回廊의 外部는 金融政策만으로서는 不充分하고 財政政策을 使用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물론 그의 論理에 있어서는 兩者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標準的인 IS-LM模型에서 古典 領域에서는 金融政策이 有效하고 케인즈의 領域에서는 財政政策이 有效하다는 식의 和 差를 示하는 結論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재, 케인즈의 權威에 지나치게 依存하려는 態度를 보여준다.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後후투드의 再解釋은 그 基本的인 思考에 있어서는 케인즈와 어느 程度 一脈相通할런지 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그 自身과 클라우어의 獨創的인 理論開發이라고 하는 性格이 뚜렷이 浮刻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케인즈의 業績으로 돌리려는 態度는 其의 美德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그 밖의 다른 理由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그들 (擊하고자 한 所得—支出理論, 또는 보다 넓게 말하여 新新古典派 내지 新經濟學의 힘 1무나 莫強하기 때문에 그에 影響力을 미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죽은 케인즈의 權威 된 것이 아닌가 推測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죽은 孔明이 산 仲達을 쫓을 수 있을 가?

## VI. 結 論

『一般理論』이 出版된 直後의 時期에 있어 케인즈革命의 意義에 대한 評價는 失業均衡의 點에 着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를 위해 케인즈안들은 流動性陷穽이나 貯蓄・投資의 利子

) 이 점에 관해서는 H.G. Johnson, *op. cit.*, (1969) p. 95. A.G. Hines, *op. cit.*, pp. 24—35를 보라.

) A. Leijonhufvud, *op. cit.*, (1969) pp. 40—45 및 “Effective Demand Failure”, *Swedish Jour. of Economics*, Mar. 1973 참조.

率非彈力性 등의 制限의 假定을 매우 強調하였다. 이것은 케인즈經濟學을 히스流의 靜學的 IS-LM模型으로 解釋한 데에서 얻어진 結果였다. 이런 식의 靜學的 케인즈 解釋은 新古典派가 主張하는 皮구效果라고 하는, 現實의으로는 無用하지만 純粹理論으로서는 妥當한 하나의 卓上空論에 의해 쉽사리 論破되어 버림으로써 케인즈理論과 新古典派理論 사이에는 新古典派綜合이라는 折衷의 妥協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결국 理論經濟學에 있어 케인즈革命의 意義를 否認하는 것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理論의 側面과 더불어 戰後 케인즈적 經濟政策의 實施로 인한 景氣의 相對的 安定, 美國에 있어 新經濟學의 隆盛, 保守의 이데올로기의 作用 등의 要因이 合勢함으로써 『一般理論』 出刊 30年後에 이르러서는 케인즈革命의 意義는 거의 喪失되어 버리는 事態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을 背景으로 하면서 IS-LM模型, 또는 所得—支出理論에 의한 종래의 케인즈經濟學 解釋에 果敢하게 叛旗를 들고 일어나 斬新한 再解釋을 提示한 사람이 라이온후푸드이다. 그에 의하면 理論經濟學에 있어 케인즈經濟學의 本質은 개인지안의 經濟學과는 判이 할 뿐 아니라 後者は 前者의 眞正한 意味를 歪曲시켰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케인즈經濟學은 情報가 完全하다고 보는 新古典派의 非現實의인 假定을 排除하면서 貨幣經濟에서 일어나는 失業이라는 不均衡現象을 分析함으로써 不完全雇傭狀態에 관한 一般不均衡理論을 展開한 데에 그 革命的 意義가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主張은 微細한 部分에 들어가서는 여러 군데에서 無理가 있는 것이 指摘될 수 있지만 크게 보아서는 케인즈의 基本的 思考方式과 상당히 符合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밖에도 라이온후푸드의 斬新한 理論展開는 不均衡理論의 발전이나 微視經濟學과 巨視經濟學의 統合 등에도 큰 寄與를 한 것으로 評價되며 正統的 所得—支出理論에 대한 맹렬한 攻擊은 經濟學界의 勢力版圖에도 다소 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라이온후푸드의 卓越한 業績의 背後에는 역시 몇 가지 限界가 指摘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新古典派理論의 殘滓를 清算하지 못한 점, 둘째, 通貨主義로 기울어지는 傾向, 셋째, 經濟政策觀에 있어서의 一定한 限界, 넷째, 케인즈의 權威에의 過度한 依存 등의 問題이다.

이렇게 볼 때 케인즈經濟學의 올바른 研究態度는 케인즈의 基本的인 思考方式을 吸收하면서 거기에 라이온후푸드, 클라우어 등에 의해 開發된 새로운 分析道具를 結合함으로써 오늘의 現實의 問題에 有效한 診斷과 處方을 내릴 수 있도록 努力하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케인즈의 權威에만 너무 執着한 나머지 『一般理論』의 字句 解釋에 그친다면 그것은 不毛의 訓古學이란 非難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